

#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박 종 훈

## 나의 작은 아픔이



나의 작은 아픔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되는 것은 참 의미있는 일이다.

나는 그래서 골수기증을 하기로 선택했고 이 일을 했다.

이웃의 아픔을 나눔으로써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내가 의미를 두는 일을 해낸 것이다.

내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감격했고, 그런 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 자랑스런 마음은 일생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수술.. 아프진 않았다.

내 예상을 전혀 깨고서..

하지만 수술 뒤에 지혈을 하느라 꿈쩍 못하는 시간이 괴로웠다.

병원 창밖으로부터 들려오는 거리축제의 목소리들은 병실에 잠시나마 누워 꿈쩍 못하고 있는 나를 들뜨게 했다.

나는 내일 곧 병실을 퇴원하면 침대에 누워 마냥 축제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다가 실제로 참가하여 볼 수 있으리란 기대가 들었다.

나는 군대에 있느라 가뜩이나 몸이 근저로운데 하물며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내가 지혈하느라 가만히 침대에서 8시간 이상 누워 있는 건 곤욕이었다.

그러나 지금 어딘가의 누군가는 여전히 병실에서 누워 바깥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인



채 언제가 될 지 모르는 거리축제를 위해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생각에 힘을 얻었고, 나를 사랑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작은 아픔이 큰 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건강하다라는 것의 의미..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잠시 병원에 있는 것이 이렇게 지겨운데 오랜동안 병원에 있어야 한다면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난 지금 난 자전 거여행을 하고 있다.

지금 나에게 골수기증을 받은 그분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가운데 나의 신선한 피가 그분에게 새 생명을 가득 부어주길 바라며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류 희 형

## 검주지 마세요.

골수 이식이라....  
말로만 들었을 때 정말 엄청난 대수술 같은 걸로 알았다.  
일단 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2002년 초봄이 시작되는 때에 연락이 왔다. 나와 골수가 같은 사람이 백혈병으로 도움을 원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일이라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다.  
99년에 헌혈을 자주 하던 때에 골수를 기증하기로 했던 것이 기억이 났다. 내가 한 약속이니 지키긴 해야겠지...하고 선뜻 대답을 했다.  
나 역시 잔병이 많아 병원신세를 남들보다 자주 지는 처지였기에 그 고통을 좀 알 것도 같았다.  
가족들에게도 말을 안하고 있던 일이라 부모님에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괜한 걱정을 하시진 않을까 하고 형에게만 얘기를 했다.  
골수에 대한 지식이 없던 나는 그 후로 친구나 아는 사람들로 부터 골수 기증이 엄청 아프다는 등, 기증한 다음에 후유증이 있다는 등의 이상한 얘기만 듣고 다녔다. 남을 도와주겠다는데 좋은 얘기는 못할망정 잔뜩 겁만 주니 기분만 째째해졌다.  
6월달쯤에 골수 기증을하기로 했었는데 골수 수혜자가 병이 악화되었



다는 연락이 왔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한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만약 내가 백혈병에 걸린다면... 이라는 생각에 골수기증을하기로 결심했다.  
수술은 고대병원에서 받았다.  
수술을 하기 전 가지고 있던 골수기증에 대한 개념은 싹 사라졌다.  
남들이 말하던 것과는 달리 그다지 아프거나 힘든 수술은 아니었다.  
중간 고사 기간이라 개인병동에서 편안하게 회복 중에 시험공부도 할 수 있었고 마음도 편안해졌다.  
학교에선 교수님들이나 형, 동생들이 좋은 일 했다고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라 조금 어색했지만 나로 인해서 한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하다.  
나의 골수를 받은 환자 분도 하루 빨리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쯤이면 그분도 나아졌으리라 믿는다.  
다른 골수 기증자나 수혜자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이 성 구

## 정말 작은 것

처음 접한 것은 회보지였던 것 같아요.

음~~이게 왜 왔을까?

안을 뜯어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이식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3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제 생에 가장 어렵던 시절에 내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일이 헌혈하러 갔다가 골수기증 신청서가 있기에 아 이거 되지 모르지만 해보자 내겐 가진 거라고는 이것 뿐인데 이것으로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그때의 맘.. 아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어야겠다는 거..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양성희씨가 연락해주셔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나누던 대화중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도 안 좋다고 하기에 그때 좀 의아했었지요. 그후 몇번의 검사중에 주위 사람들에게서 격려도 받았지만 몇몇은 그걸 왜 해.. 하며 무지 아프다느니 위험하다느니 그러더군요. 한국사람들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사실 내심 영업 일하는 제가 시간 때문에 그리고 알지 못할 두려움 때문

에 피할까 하며 갈등하던 때.. 라디오에서 들려오던 소리, 여자 나레이터의 공익광고, '한 아이가 백혈병인데 7명인가 유전자가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아이에게 골수기증을 아니 생명을 나누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내 처음의 마음 변치 말자'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수술 받기 전까지 담배도 줄이게 되고 병원 간호사 선생님들과도 친하게 됐고 많은 격려에 더 힘이 나서 즐거워했습니다. 뭐라고 할까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내 자신을 본 듯... 입원할 때는 처음 들어와 보는 고급병실에 좀 당황했지만 사람이 거만해지더군요. 내가 기증해주는데 이정도야 하면서.. 하지만 내심 제게서 받는 분이 그다지 형편이 좋지 않을텐데 하며 특실에 누워서 좋아하는 제가 부끄럽더군요.

드디어 입원한 후에도 몇 분이 검사한다며 오가시고 다음날 수술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제가 수술실 가는 줄도 모르고 자고 있었지만...zzz(중인 장형인씨) 담담해지더군요(웃으시라고 ㅎㅎ)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갑니다. 좀 떨렸죠. 마취과 의사선생님이 "숨들이 마시세요"

하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기억이 없  
네요. 일어나 보니 병실로 이동하구  
있었고요.

글쎄요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근데  
참을만 했고 진통제도 놔주시니까  
지혈 뒤에 바로 움직일 수 있더라고  
요.(지혈 정말 아픔) 제가 아프다면  
서 투정할 때 도와주신 장형인 님에  
게 감사해요. 늦었지만^^ 참 수술 후  
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나에게서  
생명을 받는 그분은 저보다 몇 배는  
더 참기 힘든 상황이고 고통 속에 살  
고 계신다는 그 얘기... 인큐베이터  
안에서 있으셔야 한다는 거.. 나름대  
로 기도를 드리게 되더군요. 제발  
내 골수가 그분에게 힘을 줄 수 있기

를, 제발 아무 탈 없이 잘 맞기를..

글쎄요 다시 기증할까봐 두려워서라  
기보다는 정말 뭔가 모르지만 나랑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몇분중에 한 분  
이니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정  
이 가고 걱정이 되더군요.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위해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죽기 전  
에 내 생명 나눌 수 있는 작은 어찌  
면 큰일이겠지만 정말 작은 그런 행  
동 그것이 사랑이라 여겨지네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기증에 동참하  
셨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  
에게 경제적 지원보다 나서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신이 아닐까요?



#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임 호 경

## 나눔의 기쁨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일을 한 것 같다.

골수기증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다.

헌혈을 한지는 10년 정도. 그렇게 헌혈을 하면서도 골수기증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TV를 보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을 했고, 그러던 어느 날인가 헌혈을 하던 중 골수기증에 관한 홍보물을 보게 되었지만 마음뿐이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실 겁이 많이 났다고 해야겠다. TV를 보면 환자들의 고통 받는 모습이 전부인줄 알고 있었기에 나로서는 용기가 나질 않았다고 해야겠다. 그렇지만 얼마가지 않아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골수기증 등록을 하게 되었다. 내가 골수기증을 등록한 시기는 99년 가을로 기억이 된다. 동기는 TV를 보다가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너무도 순수하고 맑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하게 되었고, 기꺼이 해야 할 일이라 나는 생각했다.

골수기증 등록을 하고 오랜 동안 이 사실을 잊고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인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우편함을 보니 내 앞으로 온 우편물이





있었다. 그 내용물 중 편지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정기적으로 오는 간행물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뜻밖의 편지 내용에는 나와 같은 골수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의 골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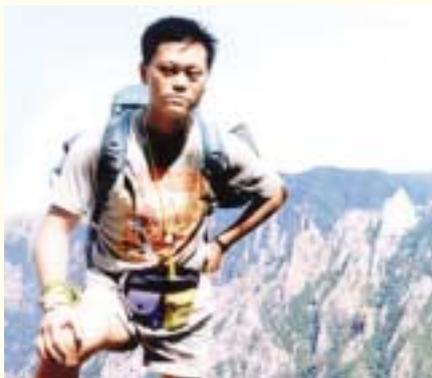
많은 생각을 하였다. 기증을 하기 어렵게 되어서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갈등을 하였지만 병상에서 고통 받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고 더 이상 주저함이 없이 담당 코디에게 전화를 하여 기꺼이 골수기증을 하겠노라고 나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골수기증을 하기 위하여 몇 차례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오가는 수고는 있었지만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다. 나의 조그만 수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인데 힘이 든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그리고 골수기증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실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조금은 겁이 났다. 그래서 대부분은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한다는데 나는 부분 마취를 하고 내 몸 속에 있는 골수를 채취 하였다. 그러나 부분 마취였지만 전신 마취와 같이 고통

을 느끼지 못하였다. 약간의 어지러움만 빼고... 그리고 바로 병실로 돌아와 몇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그것이 약간은 힘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저녁부터는 약간의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 혼자 화장실 갈 정도로 수술 회복도가 빨랐다. 병원에서는 조금 더 안정을 하라고 했지만 나의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았다. 퇴원을 하고 바로 일상 생활로 돌아왔지만 전혀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현재도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지금 골수기증을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시고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정 병 주

## 골수기증과 거시기?



‘익명’과 ‘기증’의 공합이 잘맞는 우리사회 분위기에서.. 받은 사람도 아니고, 준 사람의 얘기를 쓰라니.. 나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원고 청탁을 받고 난 직후의 생각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막상 A4 용지 한 장을 채우려니 독후감을 쓰며 괴로워하던 쓰라린 기억과 숨겨놓았던 원고지 앞에서의 갑갑함.. 간만에 반갑네~&~ 그리고 결론에 이르는 생각 ‘A C 뭘 쓰라고.. -\_-;’ 당시 원고지 장수 채우는 심정으로 시작해본다.

드라마에서 시한부인생의 주인공들.. 벌써 새하얀 얼굴에 깡마르고 누가봐도 불쌍해 보이는 화장의 결정체인 변장들 -\_-; 안봐도 비도다. 병

실에서 고생하는 수많은 환자들의 그 얼굴.. 고귀한 그 유명 배우를 불쌍하게 만들어 버리는 병은? 열이면 열 무슨 병인지 정확히 몰라도 머릿속엔 백혈병 아니면 뇌종양이 떠오를 것이다. 후자는 전과 선생님께 배운 글의 ‘주체’를 어긋나게 하는 것 같으니 일단 접고.. 퀴즈 분위기로.. 백혈병의 별명이 뭔지 아는가? ‘송해교?’ 듀..듀긴다.. - - a 그것은.. ‘집날리는 병’이다.

내가 골수기증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는 “어쩌다 하게 됐나?”는 것이다. 그만큼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고, 그런 어렵고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하기엔 뭔가가 있을 거라 여기는 기대감 때문이려나.. 물론 이렇게 지나치게 거드름을 피며 얘기하는 나 역시.. 겁나게 고민했다 -\_-;:: 의대생이란 특권덕에 골수기증하는 장면을 병원에서 봤다. 당시 같이 본 사람끼리 뭐가 대단한 약속이라도 하는 듯이 했던 한마디는 ‘우리 절대 저거 하지 말자’ 였다.. 그때야 뭐.. ‘진신마취’란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덜컥하던 때였으니.. 그래.. 돌 날려도 좋다 지금은. 그뻘 그랬지~ 분위기니깐 ~\*^v



글엔 주제가 중요하니, 이 글을 읽게 되는 연을 겪게 된 사람중 아직 골수기증을 안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TV에서 보여주는, 치료법이 없는, 그 무시무시한 백혈병의 치료법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니 하게될 기회를 갖게 된 '골수이식'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 송해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자. 그럼 '저요 저요~' 하다가 궁금해진다. '그럼 다 낫나요?--?' 실망스럽지만 아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와 같은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 받는 경우의 완치율은 60% 정도이다. 낫아 보인다고? 사실이다. 낫아 보인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받지 못하는 경우엔 환자 자신의 골수를 받게되는 방법 밖에 없게 되는데, 이경우의 완치율은 30% 정도로 더욱 낮아진다. 하지만 확률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내가 한 명을 살렸다면 내겐 백퍼센트가 되는 것이다.

골수 기증에 대한 설명을 듣다보면 뽑는 양에 대해 놀라는 경우를 종종 본다. 성인의 경우 1,200ml 애들도 900ml 뽑는다. 어렸을 때 아무리 마셔도 줄어들지 않고 끄떡없어 보이던 서울우유 한 팩이 그려질지도 모

른다. 그리고 머릿속에 세 글자가 떠오르겠지.. '세 상 에'.. 하지만 겁먹지 마라.. 우린 서울우유보다 훨씬 독한 술을 마시는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술집에서 술 대신 괴롭게 음료를 마시는 사람 빼곤 지금 가서 메뉴판을 보라.. 그리고 종업원을 불러 어느덧 익숙하게 말하는 당신의 모습.. "야~ 우리 가볍게 맥주 한잔 하자. 여기요 1700하나 하고~" Ooops! 1700! 그 고고한 자세로 우리 머릿속에서 버티던 '서울우유' 네 글자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지 =^o^=

"야.. 내가 이번에 골수가 맞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거 기증하고 나면 거시기가.. 안좋아 진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냐?" 나름대로 심각한 얼굴의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들어보는 것이 소원이다. 그만큼 많이 알려지고 기증자도 많아지고 그에 대한 '쩨~'도 많아져서 술자리에서 흔히 지나가는 얘기로 듣게되는 날 말이다. 10년뒤의 가을동화에선 송해교가 안 죽었음 좋겠넹

^o^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해 정말 궁금해지는 분들에게.. "임상실험 결과.. 남네요" - \_\_-v

#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이진경

## 가장 예쁜 모습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던 나는 헌혈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만의 만족감이 있었다. 한장 한장 쌓이는 헌혈증을 보면서 흐뭇해 하는 것 또한 나만의 기쁨이리라.. 그 날도 나만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하여 헌혈의 집을 찾았고, “골수기증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자”..란 포스터문을 보게되었다. 간호사 분께 골수기증이 무어나고 몰었더니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내가 망설임 없이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간호사 분께서 보호자 승낙을 받고 신청을 하라고 하였다. 신청을 한 후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거절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면 그 환자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된다고 하였다.

난 나의 보호자인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흔쾌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수술대 위에 아내를 눕히지 않겠단 이유였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아니면 수술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과, 수술후 다시 건강한 본래 모습을 찾을 것이라는 것, 회복은 바로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건강도 유지하면서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한다는 이야기에 목청을 돋구며.. 그리고 가능성이 이만분

의 일이라는 설명도 함께 했다. 남편은 함께 신청할 것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 둘은 함께 신청을 하려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은 나이 제한선에 걸렸다. 마흔이 넘으면 신청을 받지 않는단다. 그래서 나만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하루하루 맞는 사람이 나오길 기대하며 기도했었다. 주님..제가 건강할 때 허락해 주소서... 이러다 내가 나이를 먹거나.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며 맘을 조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디네이터 양성희 씨로부터 집으로 전화가 왔다. 골수가 꼭 맞는 사람을 찾았다고 기증할 의향이 있느냐고.. 얼마나 기뻐던지 아마도 누가 옆에서 나를 봤다면 입이 귀에 걸렸다고 했을 것이다. 입에선 콧노래가 나오고 있었다. 내가 건강할 때 이런 행운이 오다니.. 복권이 당첨된 기분이라까.. 그러다 남편이 들어왔고, 이 소식은 남편 핸드폰으로 먼저 전달되었던 것 같았다. 남편은 무언가 머리를 쿵! 때리는 것 같더라. 그래도 기증 받을 사람이 6살 여자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해 줬다.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하여...

그러나 전화를 받은 후 수술까지의



기다림이 너무나 지루했다. 계속 진화를 할 수도 없고.. 나는 기다리다 정기적인 헌혈을 하였다. 그것도 진혈을 말이다 그것이 실수였다. 앞으로 뽑아야 하는 피가 많이 있었던 것이다. 바로 다음달부터 자가혈을 뽑았고, 검사 시에도 피를 많이 뽑았고.. 또 자가혈을 뽑았고.. 그렇게 두 달 사이에 1000cc정도 되는 양을 뽑게 된 것이다.

병원을 들락거려 본적이 없는 나는 환자복 입는 것이 너무 어색했고 다음날 수술 준비로 몸 조리 하라는 것 또한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남편이 홍보차(골수기증홍보) 이곳저곳에 알려야 한다면서 알리는 바람에 수술전날부터 많은 친구며 사람들이 들락거렸다. 그래서 환자 아닌 환자가 되었다. 그 기세는 수술하면서 꺾였다. 7시 50분경 수술실로 향해서 1시가 다되어서 올라온 나는 아마도 남편 기억에 다신 떠올리기 싫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1000cc의 골수를 뽑고 다시 자가혈로 수혈은 받았지만, 미리 뽑아둔 피가 조금 모자라서 남의 혈액으로 수혈을 받게 되었다. 내 몸을 정상으로 돌리는데 병원은 아낌없이 노력을



한 것이다. 지혈을 하기 위해서 허리에 동여 매여진 것만 없으면 날아갈 것만 같았다.

수술을 하는 동안 남편은 올해 들어 끊었던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하지만 찾아와서 걱정해 주는 사람들에게 남편은 “내가 본 모습 중에서 가장 예쁜 모습을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남편은 말했다.

“당신이 자랑스럽다..그리고 멋있다..”

3박4일동안 병원에 있었다. 하루하루 호전되었고 퇴원할 때는 집에서 조금만 더 쉬면 좋아질 꺼라 생각했다. 내가 좋아하는 수영을 하기까지는 2달 걸렸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정상의 몸이다.

6살 아이가 살아났고.. 내 건강도 다시 찾았고..

많은 사람이 잘했다는 대단하다는 낮간지러운 칭찬도 많이 많이 들었다.

내가 다시 골수 기증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1년이란다. 다음에 내가 건강이 남아 있을 때 또 한번의 기회가 주워 진다면 그래서 또 다시 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만히 기도를 해 본다.

꼭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냉담한 반응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남이 한 것은 대단한 일인데 왜 나는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영민 과장님과 코디네이터 양성희씨, 황주연씨가 무척 열심히 도움을 주기 위하여 뛰어 다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관심인 것 같다. 이런 일은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신청자와 기증자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보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신청자와 기증자만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등불이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흐뭇해 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만큼 뿌듯한 일이 또 있을까?

비가 활취고 간 자리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내리는 비가 원망스럽기만 하지만 가을이란 녀석은 성큼성큼 다가와 활취 자리 위로 푸르디 푸른 하늘을 가끔 보여주며 시름을 잠시 잊게 해준다. 가을은 모두가 풍성하게 자리하길 바라는 것이다.

내 것을 내어주고도 다시 채워지는 골수기증은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한다.